만남

2023년 4월
통권 218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부활대축일 부속가 中>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 목 차 ❖

2023년 부활 담화문 ---------- 3

사순 묵상 ---------- 5

신앙체험 나눔 ---------- 6

소공동체 모임 자료 ---------- 8

전례 맛들이기 ---------- 11

공동체 제언 ---------- 14

우리 시대의 성인들 ---------- 17

축일을 축하합니다 ---------- 21

본당 전례, 본당 살림살이 ---------- 22

공동체 소식 ---------- 23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4

월 중 행사표 ---------- 25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6

미사안내 ---------- 27

《교황님의 4월 기도지향》

❖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를 위하여**

국가와 시민이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를 널리 퍼뜨리도록 기도합시다.

✚ 부활 담화문 (신은근 바오로 신부님 / 마산교구 교구장 서리)

교형 자매 여러분,

2023년 부활축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크신 축복을 기원합니다. 금년 부활절에도 주님의 메시지를 많이 묵상합시다. 다시 시작하라는 그분의 암시를 더 많이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는 약해졌지만,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습관들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행사 참여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도 여전합니다. 조용한 변화가 있어야겠습니다. 믿음의 길은 함께 걸을 때 깨달음을 쉽게 체험합니다. 은총으로 사는 이들과 함께 걷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두려움 때문에 숨었지만 함께 있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부활은 변신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의 시신을 울면서 찾습니다(요한 20,11). 천사를 만나자 '당신이 주님을 모셔갔다면' 알려달라고 합니다. 시신이라도 뵙겠다는 열정으로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듣자 즉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막달레나 역시 부활을 체험했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신심행위는 예수님을 만나려는 노력입니다. 느낌이든 깨달음이든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신하려는 행동입니다. 현실의 숱한 사건 속에서 가끔은 그분 손길을 느껴야 합니다. 한 번쯤은 처음부터 개입하고 계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막달레나의 변신을 체험하는 행위입니다. 금년 부활시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구는 새 청사를 마련했고 이사를 마쳤습니다. 아직 헌당식은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기쁘게 참여하며 궂은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던 성직자 수도자 교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따뜻한 축복을 내려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부활축일과 함께 자연의 생명력은 한층 강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움츠렸던 많은 곳에 부활의 힘은 분명 함께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갇혔던 라자로를 불러내셨습니다(요한 11,43).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부르고 계십니다.

어두운 뉴스들이 많습니다. 삶을 보는 눈이 차가우면 많은 것들이 어둡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디찬 죽음을 건너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힘입니다. 밝고 따뜻한 부활의 에너지입니다. 그 은총을 청하며 천박한 뉴스에 현혹되지 말아야겠습니다. 부활시기를 영적으로 지내려는 지혜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만 여기면 혼돈은 떠나지 않습니다.

루카복음 24장에는 실망감에 젖어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던 두 제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는지요? 코로나 사태 이후의 신앙인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시어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루카 24,32)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뒤 본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처음 위치로 돌아가려 애쓰면 주님께서는 눈을 뜨게 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엔 스승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면서 숱한 기적을 보았건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놀라서 하는 말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부활 후 발현하신 스승님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꾸중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사건 이후 바뀝니다. 목숨까지 하찮게 여기며 스승의 부활을 사방에 전하러 다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외칩니다. 놀라운 변신입니다. 다시 살아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청해야 합니다.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이번 부활시기엔 청해야 합니다.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쳤습니다. 부활사건은 '십자가 길 기도'의 완성입니다. 십자가는 억울함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억울함을 만납니다. 견디기 힘든 억울함도 많습니다. 그 아픔을 돌아보는 것이 십자가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 고통에서 주님 뜻을 찾는 것이 영성생활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반전이 옵니다. 상상도 못 했던 반전을 만납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인생에서 부활은 한 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마다 부활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부활절엔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으며 살아야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의 따뜻한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은혜로운 부활시기 되십시오.

❤ 은총의 바다 (최영숙 데레사)

예수님 십자가를 향하여 너와 내가 우리로 하나 되어
손에 손을 마주잡고 발에 발을 나란히 맞추어 가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사랑이야기 나누며
세상평화와 영혼구원을 위하여 은총의 바다로 간다네!

원죄를 안고 태어나 인간의 모순덩어리로 살아온 날들
십계명을 알면서도 세상의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고집대로만 살다보니 세상에서 늘 헤매며 방황했는데
은혜로운 사순시기에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 뵈옵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마에 재로 십자가 그으며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하시고
은총의 바다로 초대하시니 이보다 더 큰 영광 있으랴
세상의 온갖 때로 물들은 영혼을 눈처럼 희게 하시네!

세상풍파와 사람풍파에도 그리스도께서 빛을 밝히시니
잠자던 영혼은 깨어나고 멀었던 눈은 새롭게 보게 되고
막혔던 귀는 듣게 되고 붙었던 입은 주님을 찬미하면서
하느님의 기쁜 소식인 복음말씀을 마음에 새삼 새기네!

하느님의 자비가 축복의 물로 솟아오른 신비의 바다에
예수님의 성심이 진리의 물로 밀려오는 생명의 바다와
성모님의 성심이 성령의 물로 흘러오는 구원의 바다가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은총의 바다네!

은총의 바다는 우리영혼의 샘터요 우리마음의 쉼터며
믿음이 싹트고 신앙의 열매가 영글어가는 사순시기에
인생의 거친 폭풍도 잠재워주는 은총의 바다로 간다면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와 축복을 누리겠네!

❤ 저는 하느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순자 마리아)

'참 행복해 보입니다 '
요즘 제가 만나는 분들께 자주 듣는 말입니다.

2주간의 기도 체험 피정, 9개월간의 영신 수련, 또 2주간의 연례 2주피정을 마친 후의 저의 소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저는 하느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 입니다.'입니다.

연례 2주 피정을 시작하자마자 첫 주에 어둠 앞에 섰을때 순식간에 과거의 비참한 어둠의 기억 속으로 떨어짐을 경험하며 "아! 하느님 또 왜? 또 왜 기억하기 싫은 비참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지....하면서 포기하고 싶었고 "이제는 그만 됐어. 그냥 이대로 살자"하는 어둠의 유혹을 견디어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2번 1시간의 기도 속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또 성모님께서 불려주셨던 은총을 생각하며 주님께 온전히 나를 의탁하였습니다.

기도 속에서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저를 구해주신 구원자 하느님의 빛 속으로,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 아버지 하느님께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앉으면 어둠이 다가와 "넌 안돼. 넌 별수 없어. 넌 여기까지야. 너 주제에 무슨 관상기도?"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어둠이 일으킨 비참한 자기 비하와 낮은 자존감이 저를 엉망으로 살게한 주범이었고, 하느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어둠의 방해라는 것을 이제는 알기에, 그 구렁텅이에 또다시 빠지지 않으려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들었습니다.

첫 주에 특히 어둠의 기억들이 몰려와 힘이 들었지만, 그럴수록 더 하느님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 사랑하는 그분 앞에서 때론 울고 때론 감사하고
때론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행복도 맛보았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우둔한 저였지만 지도 신부님과 봉사자의 도움으로 기도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음식과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듯이, 하루 1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탄생, 공생활, 수난, 부활의 삶을 같이하며 예수님과 제자들과 한 식구가 되어감을 느낍니다.

특히 루가복음 15장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에게 입맞춤하며 환영하는 기도 안에서 저도 아버지의 입맞춤을 받으며 아버지의 용서를 받는 체험을 했습니다.

죄와 어둠에 빠진 저를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으로 온전히 용서하시고, 어둠의 시궁창에서 불러내시어 지금은 늘 주님의 가까이에서 봉사하는 전례 부장으로, 또 레지오 단원으로 28년 동안 이끌어주셨습니다.

전 용서받은 딸이니 행복합니다.
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 행복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고난 속에서도 행복한 이유는 제가 아버지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저를 괴롭히고, 어떤 고난이 저를 괴롭혀도 어둠에 빠지지 않고 깨어있겠습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빛 속에서 제 영혼을 더 맑게 맑게 씻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행복을 희망합니다. 아멘.

(2023년 2주 연례 영신수련자, 독일 함부르크)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요한 20,1-9)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29번 "알렐루야 노래하자" 1절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님! 저희에게 진리의 영을 내려주소서.*

❖ *저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 당신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요한 복음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20 1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2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4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5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6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7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곳에 개켜져 있었다.

8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9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요한복음서」가 '어둡다'고 말할 때는 예수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마음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찾아 올 때는 언제인지 나누어 봅시다. 하느님을 위해 최근에 한 것이나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부활 신앙은 바로 주님께서 생명이심을 알려줍니다. 우리 주위에서 부활신앙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한 적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최고의 시인 롱펠로는, 부인을 둘씩이나 사별하는 불운 속에서도, 아름답고 고귀한 글들을 수없이 남겼습니다. 그의 나이 75세 되던 어느 날, 한 신문의 기자가 찾아와 "선생은 많은 슬픔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오셨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리도 주옥같은 글들을 뽐어낼 수 있으셨습니까?"라고 묻자, 롱펠로는 앞마당에 있는 고목이 되어버린 사과나무를 가리키며 "저 나무가 나의 스승이올시다. 죽은 듯 보이는 저 나무에서는, 해마다 새 가지가 나와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죽은 십자가 나무에서 부활의 꽃이 피었듯이, 나의 고통은 나에게 새로운 꽃과 열매를 주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십자가 나무에서 부활의 꽃이 피듯, 깨어진 알에서 날개 달린 새가 나오듯, 부활은 우리에게 자신을 바치고 죽게 하는 아픔을 요구합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34번 "거룩하다 부활이여" 1절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성주간, 어떻게 보낼까

- 주님 수난과 죽음 묵상하고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됨을 기념

사순 시기는 주님 수난 성지 주일(4월 2일)에 이르러 절정을 향한다. 주님 수난 성지 주일부터 한 주간을 '성주간'(聖週間)이라고 부른다. 사순 시기의 마지막 주간에 해당한다.

성주간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서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 전까지의 사순 시기와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부터 성토요일까지를 포함하는 기간이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죽음을 소멸시키고 부활로써 생명을 되찾아 주셨음을 기념하는 성주간은 전례주년에서 가장 거룩한 기간이다.

신자들은 성주간 전례에 참례해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부활의 신비를 깊이 깨달을 수 있다. 성주간의 구성과 의미를 살펴본다.

■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은 예수님께서 하느님 구속사업의 거룩한 축제인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해 수난을 당하신 사실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날 예식은 신자들이 축복받은 성지(聖枝)를 들고 성당으로 이동하는 행렬과 수난 복음 봉독으로 구성된다.

성지는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상징하는데 성수를 뿌려 성지를 축복한 뒤 예루살렘 입성을 전하는 복음을 낭독한다. 이때 중심이 되는 것은 성지가 아니라 행렬을 통해 드러나는 메시아이자 왕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다. 나뭇가지를 들고 행렬하는 예식은 9세기 무렵 교황청의 로마 예식 안에 들어왔다고 추정되지만 11세기 말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의 「기도문집」에 확실하게 나타난다. 성지에 대한 왜곡된 신심이 존재한 적도 있다. 중세 민중들이 성지에 악령을 몰아내거나 악령의 행위를 막는 힘이 있다고 믿어 중세 말에는 성지 축복 자체를 준성사(準聖事)로 취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1955년 전례 개혁이 이뤄져 성지 축복은 단순화되고 행렬이 다시 성대해졌다.

성지 행렬에 이은 입당 후에는 참회 예절 없이 본기도로 미사를 시작한다. 미사에서는 수난기를 읽으면서 주님의 죽음에 관한 신비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음을 맞은 것은 부활로써 구원 신비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묵상한다. 14세기까지는 수난 복음을 부제 한 명이 낭독하는

관례가 지켜졌지만 이후 북유럽 여러 교회에서 세 명의 부제가 역할을 분담하며 연극적 효과를 얻었고 이런 형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 성주간 월~목요일

성주간 월~수요일에는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의 분위기가 이어진다. 독서와 복음 모두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예고하는 사건들로 이뤄진다.

성주간 목요일 오전에 봉헌되는 성유 축성 미사로 사순 시기는 마무리된다. 성유 축성 미사에서 주교는 사제들의 서약을 갱신한다. 성유 축성 관행은 이미 3세기 초 문헌인 「사도 전승」에 실려 있으며 성목요일에 성유를 축성하는 관행이 확립된 것은 8세기경이다. 이날 독서는 하느님 백성이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함을 보여 주는 내용들이다.

성유는 축성 성유(크리스마 성유)와 병자 성유, 예비신자 성유 세 가지로 구분된다. 성유는 도유(기름 바름)를 통해 성사를 거행하거나 사람과 사물을 축복할 때 사용한다. 축성 성유는 세례, 견진과 성품 성사 때, 그리고 성당 축성 때에도 사용한다. 병자 성유는 이름 그대로 병자 성사를 위해서 쓰이고, 예비신자 성유는 입교 예식 중 예비신자에게 도유하는 데 사용된다.

■ 주님 만찬 성목요일

가톨릭 전례의 정점인 파스카 성삼일은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부터 시작된다. 초대교회부터 주님 만찬 미사를 봉헌하는 시점과 전례상 의미는 변동을 거듭하다 1955년 전례 개혁으로 주님 만찬 미사는 저녁에 봉헌하게 됐고,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다시 전례 개혁 작업을 거치면서 주님 만찬 미사부터 파스카 성삼일 시작이 확립됐다.

주님 만찬 미사의 두드러진 특징은 대영광송을 부를 때 종을 친 뒤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미사에서 대영광송을 할 때까지 종을 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수난을 본받아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멀리하며 절제하고 검소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말씀 전례 끝에는 발씻김 예식을 거행한다. 발씻김 예식은 일찍이 아우구스티노 성인(354~430) 시대에도 있었지만 로마에는 12세기에 도입됐고, 본래 주교좌성당에서만 거행되던 것이 1955년 이후 모든 성당에서 거행되고 있다. 한국교회는 교황청 경신성사성 교령에 따라 2016년부터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과 병자, 노인 등 모든 이가 발씻김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주님 만찬 미사 중 성찬 전례를 마치면 '수난 감실'에 성체를 옮긴다. 신자들이 성체를 공경하고 성체조배를 하면서 성찬 전례가 없는 주님 수난 성금요일 말씀 전례 때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다.

■ 주님 수난 성금요일, 성토요일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다. 이날은 오랜 전통에 따라 성찬 전례를 거행하지 않고 말씀 전례와 십자가 경배, 영성체로 이어지는 주님 수난 예식을 거행한다. 아울러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금육과 단식을 한다.

성금요일은 주님의 죽음을 애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원천인 십자가 제사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다.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로 이어지기에 복된 수난이기 때문이다. 십자가 경배 예식을 마치면 성체를 모셔와 신자들에게 영해 주는 예식이 이어지는데 주님 수난 성금요일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애도하는 날이라기보다 부활의 기쁨과 파스카 신비를 느끼는 날이라는 점이 이때 드러난다.

성토요일에는 주님의 무덤 옆에 머물러 주님의 수난과 죽음, 저승에 가심을 묵상한다. 이날은 고해성사와 병자 도유를 제외하고 모든 성사를 거행하지 않으며 임종자를 위한 노자성체(路資聖體)만 행해진다.

■ 파스카 성야,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예식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밤을 기념해 교회 전례에서 가장 성대하게 거행된다. 예식은 제1부 빛의 예식, 제2부 말씀 전례, 제3부 세례 전례, 제4부 성찬 전례로 구성된다.

빛의 예식에서 사제가 부활초를 높이 들고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라고 말하면 신자들은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답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가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됐음을 기억한다. 말씀 전례에서는 구약 독서 7개, 신약 독서 1개, 복음 낭독을 한다. 구약 독서 7개 중 2~3개만 읽을 수도 있지만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건넌 사건을 다룬 탈출기 14장은 부활 신비의 표상이라는 점에서 결코 생략할 수 없다. 세례 전례는 세례가 그리스도의 부활 신비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파스카 성야 예식의 의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주님 부활 대축일은 주일이 한 주간의 정점이듯 전례주년의 최고 정점을 이루는 날이다. 신자들은 이날 하느님의 권능과 주님 부활의 은총에 감사드려야 한다.

❤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이다 (김진호 프란치스코)

오늘도 어김없이 날이 밝아오고 있다. 이렇게 하루가 시작된다.

내가 매일같이 만나고 있는 하루는 세상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하루의 일상은 모두가 다른 하루를 만나며 보내고 있는 것을 삶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삶이지만 사람마다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가는 길이 다르기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다면 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만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신앙으로 만날 수 있는 은총의 시간도 함께 만나게 되었다.

내가 신앙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람들의 삶에 희망인 부활의 기쁜 소식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부활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하고 생각한다.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람들의 희망을 절망으로 실망하게 만들던 사건이다. 그러나 오늘까지 알리는 예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영원한 새 생명을 얻는 새로운 희망으로 2000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은 나에게도 특별한 날이기도 하다.

이날이 찾아오면 나는 이 기쁜 소식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 중에서 까맣게 잊고 살았던 그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서 미워했던 그 누구인가도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을 만날 수 있기에, 나에게는 참회로 보속하는 희망의 날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내가 받은 이 기쁨과 희망하는 축복의 시간은 나에게서 오래 머무르지 않고 내 곁에서 멀어져가고 있다.

그럴 때마다 누구인가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서 하느님께 도움을 청해보지만 어느 순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고 만다. 이렇게 지금까지도 특별히 변한 것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아오는 동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체 나이의 숫자만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이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나에게는 많은 변화들만이 나를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깜짝 놀라기도 한다.

나를 찾아오는 것들 중에 제일 자주 만나고 있는 것은 자식들 그리고 손자들이 늘 내 곁에 머무르고 있기에 고마운 마음에서 항상 그들과 함께하고 있을 때가 많다.

이렇게 내 곁에서 떨어질 줄 모르고 늘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놈들의 미래의 삶이 궁금해지고 걱정이 되어 떠나지 못하고 항상 같이 동행하며 이들에게 늘 좋은 일만 있기를 희망하며 기도하고 있다. 나의 욕심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욕심 때문에 나를 귀찮게 괴롭힐 때가 많다.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것은 특별한 것들이 아니고 늘 내가 속해있는 가족들과 이웃들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단체들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는 바보 같은 짓거리들이다. 솔직히 말한다면 오래전부터 내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문제가 내 마음속에 응어리처럼 붙어 은근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쓸데없이 아니 건방지게 간섭하는 것 같아 민망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늘 내 마음을 아프게 괴롭히기도 한다. 어쩜 이것은 늙어가는 한 노인의 주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주책을 버리지 못한 체 우리 미래 교회의 욕심을 부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받은 엄청난 선물이 내 곁에서 떠나면 어쩌나 해서 걱정을 하게 한다. 이 엄청난 선물을 감히 내가 감당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선물은 나를 불러주신 하느님의 집 우리들의 만남교회이다. 언제인가부터 쓸데없이 주책을 떨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늘 바보 같이 하느님을 부르며 기도한다.

이는 어쩜 나를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하느님의 집 교회의 미래도 함께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우리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게 된 것은 주일미사 때마다 느끼곤 한다. 나는 언제인가부터 지나간 과거에 신앙인들의 삶과 오늘의 신앙인들의 삶 그리고 미래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만나면서 우리 공동체의 미래도 함께 그려보게 되었다. 그래서 습관처럼 주일미사 때마다 미사에 몇 명이 함께하고

있을까 하고 세기 시작했다. 언제인가부터 하나 둘 세다가 느끼게 된 것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세대교체가 필요할 때가 가까워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걱정을 하게 된 것은 어쩌면 우리 교회는 우리 세대에서 끝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삼 년 전부터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코로나란 팬데믹의 쇼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흔들어 놓았고 미사에 함께하는 교우들도 많이 줄어들었기에 앞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22년 예수님 성탄을 맞이하면서 온통 걱정으로 쌓였던 내 생각을 새로운 희망으로 기대하게 되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며 희망을 알리는 거룩한 사랑의 종소리가 우리 교회에서 우렁차게 들려오는 것을 보면서 감동의 눈물이 나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감히 내가 미처 상상도 못했던 커다란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깜짝 놀라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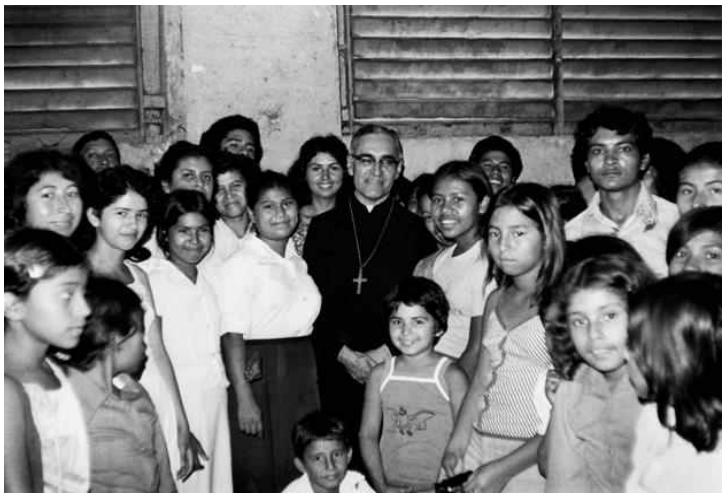
하느님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기에 감회가 새롭다.

22년 늦은 밤 성탄 성야 미사에 천상의 소리가 들여오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불러준 어린이 합창단에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고맙기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우리들의 꿈나무요 자랑인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성탄절 미사와 구정에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들의 희망이며 미래입니다. 여기까지 애써주신 주임신부님과 요셉&마리아회 자매님과 형제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만남 성당은 끊임없이 번영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어지리라 믿는다. 지나버린 많은 시간 동안 조마조마하며 걱정해오던 뜻이 오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축복이며 은총이라 생각한다.

우리들의 미래인 주일학교와 청년모임과 요셉&마리아회 교우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시고 영육 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 우리 시대의 성인들 - 성 오스카 로메로(1917~1980)



<군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로메로 대주교(가운데, 연대 미상).>

■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복수입니다.”

성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Oscar Romero·1917~1980)는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강조하며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폭력에 맞섰다. 암살 당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는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 사랑 실천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 시대의 성인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의 삶과 정신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면모와 사랑을 찾아본다.

■ 말씀을 중시한 10대 소년 로메로

‘주님의 말씀은 뉘우치는 자들에게 온유한 용서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거룩한 지시이고 영원한 가르침입니다. 그 말씀은 밝게 비추는 빛, 희망을 주는 조언입니다.’

엘살바도르에서 태어난 10대 소년 오스카 로메로(이하 로메로)는 소신학교에서 공부할 시기 이 같은 시를 썼다. 전기 작가 헤수스 델가도씨가 찾아낸 당시 그 시를 보면 어린 시절부터 로메로는 그리스도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오스카 로메로」 저자 케빈 클라크는 이러한 내용을 밝히며 “이 시에는 사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10대 소년인 로메로의 생각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목수가 되길 바라던 자신의 아버지를 설득해

13살에 사제가 되기 위해 산미겔 소신학교에 들어간 로메로는 산살바도르에 있는 국립 신학교, 로마 교황청립 그레고리오 대학교를 거쳐 1942년 4월 4일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사제품을 받았다.

■ 보수적인 주교

사제가 된 로메로는 1974년 산티아고 데 마리아교구 주교로 임명되기까지도 조용하고 학구적인 성품으로 보수적이라는 평을 받았다. 아나모로스에서 본당 사제로 활동하고 산미겔에서 교구장 비서 등 주요 직책을 수행하면서 그는 전통적인 교회 가르침을 수호하는 일에 전념했다.

엘살바도르 주교회의 사무처장과 산살바도르대교구 보좌주교, 산티아고 데 마리아교구 교구장을 역임한 후 1977년, 그가 산살바도르대교구장으로 임명됐을 때 정부와 기득권 세력이 환영한 이유도 그래서였다. 반면 상당히 보수적인 인물이라는 점에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 헌신하던 많은 사제들은 실망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로메로 대주교 최측근이던 산살바도르대교구 보좌주교 그레고리오 로사 차베스 추기경은 훗날 '목소리 없는 이들의 목소리'가 된 그에게 "'사람들이 대주교님이 전향했다고 말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물었더니, 대주교님은 '전향이 아니라 진화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로메로 대주교는 실제 1977년 중요한 일을 겪으며 한순간 회심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전부터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등의 실천에 관심을 가졌고, 산티아고 데 마리아교구 교구장 시절, 가난한 농민들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이미 힘없는 이들의 인권을 말했다.

■ 목소리 없는 이들의 목소리

특히 그가 '목소리 없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며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사랑 실천에 나선 데에는 1977년 루틸리오 그란데 신부가 피살되는 사건을 경험한 영향이 컸다. 그란데 신부와 오랜 우정을 쌓은 로메로 대주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했던 그란데 신부가 피살되자 정부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그의 요구는 무시됐고 언론도 조용했다.

이에 로메로 대주교는 산살바도르대교구 주교좌성당에서 그란데 신부 장례미사를 주례하면서 "이 자리에 모인 사제 가운데 한 명이라도 건드리는 것은 곧 나를 건드리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1979년 산살바도르 주교관의 라디오 녹음 스튜디오에 있는 로메로 대주교.>

정부의 면담 제의도 거부했고, 그는 주일마다 전국에 방송되는 라디오로 고문 당한 이 등을 위해 강론했다. 군사 정권의 만행과 박해는 계속됐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용기 있게 가난한 이들 편에 섰고, 고통받는 민중의 대변자로서 그는 더욱 강하게 외쳤다.

"우리의 권리를 확고히 보호합시다.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동한다면 죄인들의 회개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복수입니다."

■ 그리스도 따르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은 사랑

이처럼 군부 독재에 맞서 사랑을 외친 로메로 대주교는 1980년 3월 24일, 눈을 감았다. 산살바도르 '하느님 섭리의 병원' 성당에서 암 환자를 위한 미사를 주례하며 강론하고 제단 중앙에 섰을 때였다. 군사 정권 사주를 받은 무장 괴한이 그의 가슴에 총구를 겨눴고, 총알을 맞은 로메로 대주교는 숨을 거뒀다. 폭력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민중에게 불의가 아닌 양심을 따르라고 용기를 북돋운 그에게 군부가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로메로 대주교는 어떤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른 사랑 실천에 주저하지 않았다. 피살되기 얼마 전 그는 한 기자에게 "그들이 나를 죽인다면, 엘살바도르 민중 가운데에 부활할 것"이고, "엘살바도르 구원과 부활을 위해 내 피를 하느님께 기꺼이 바칠 것"이라고 확언했다.

이러한 사랑의 순교에 로메로 대주교는 2015년 5월 23일 시복됐고, 2018년 10월 14일 성인 반열에 올랐다. 영국에서는 그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다.

■ 사랑 실천 위해 우리도 모든 것 내려놓아야

2018년 10월 14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로메로 대주교 등 7명의 시성

미사를 집전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가 성덕의 삶을 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증거자였다고 밝혔다.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며 “오늘 시성된 성인들은 이 길을 따랐다”고 강조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7년 자의 교서 ‘이보다 더 큰 사랑’에서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라며 ‘목숨을 내놓는 것’을 시복 시성 절차 새 안건으로 올린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교는 무엇인지 일깨워 준다.

군부 독재에도 사랑의 승리를 예견한 로메로 대주교, 위협 속에서도 더 강하게 사랑의 길을 걸은 그는 한순간 성인이 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더욱 크다. 그가 남긴 사랑의 말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들려주고 있다.

“더 가지려 하지 말고, 더 나아지려 하십시오.”

“그리스도 사랑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하는 사람은 땅에 떨어져 죽은 밀알 하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지치지 말고 사랑을 선포합시다. 사랑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우리 눈앞에서 폭력의 물결이 그리스도인 사랑의 불을 몰아낸다 하더라도,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 축일을 축하합니다 ❖

❖ 4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8일	율리아	황혜인 김성은	11일	젬마	이수빈
13일	마르티노	김성일	15일	아나스타시아	박지훈
15일	벨라데타	최성자, 오옥수	24일	보나	이보나
25일	마르코	강석진, 김성윤	29일	카타리나	이화자, 정혜경
29일	카롤리나	김계희	30일	소피아	김주현, 이명희

❖ 4월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2일	10	216	169	115
8일 (부활성야)	-	130	136	134
9일	130	210	138	136
16일	134	217	165	129
23일	135	342	179	138
30일	18	218	160	55

❖ 본당 전례 ❖

❖ 4월 전례 봉사 ❖

	독 서	제 병 봉 헌	해 설	커피 봉사
2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허길조(안드레아) 허영자(가밀라)	박종래(바오로)	3구역
8일 (부활성야)	1:최승진 3:신지혜 5:배성우 7:심은희 서간: 김한솔나	허채열(클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박종래(바오로)	-
9일	한말조(마리안나) 신유경(율리아)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박종래(바오로)	4구역
16일 (청 년)	이현준(미카엘) 박가람(엘리사벳)	최승진(바오로) 신지혜(세실리아)	허선애(임마누엘라)	요셉 마리아
23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김치수(도미니코) 이영희(클라우디아)	박성아(베로니카)	1구역
30일	이경규(안스가) 유곡지(아그네스)	이영원(베드로) 김정옥(크리스티나)	박성아(베로니카)	2구역

❖ 본당 살림살이 ❖

❤ 3월의 헌납금 납부자 명단입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자진헌납금(3월 20일 기준)

강신행, 윤석순, 김점선, 영희 Eggerstedt, 최순남, 신유경, 이종하, 김경미, 최장용, 허선애

✿ 본당 계좌 입금(3월 20일 기준)

정정숙, 송문규, 이경규, 옥수 Renitzsch

✿ 교구 계좌 입금(3월 20일 기준)

김치수, 이명원, 허길조, 허두옥, 백정선, 김대현, 이정수, 이공종, 김동수, 이정은 현영애, 김유석, 권지연, 김민옥, 이세옥, 최성자, 이경란, 김영복, 신유경, 배성우

※ 교구에 입금하셨지만 연락해 주지 않는 교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본당의 살림살이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봉헌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3월 20일 월말 경상비 잔액은 21,237.22유로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4월 5일부터 7월 26일까지 수요일 미사는 저녁 7시로 변경됩니다.

2. 3월 31일은 사랑의 단식재 권고일입니다.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절제한 몫은 4월 2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미사 때 봉헌합니다.

3. 4월 6일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는 18시 15분 주교좌 돔 성당에서 합동으로 봉헌합니다.

4. 4월 7일 성금요일 주님 수난 예식은 15시 예수성심 성당에서 합동으로 봉헌합니다. 예식 중에 예루살렘 성지보존 헌금이 있습니다.

5. 4월 8일 주님 부활 성야 미사는 20시 만남성당 강당에서 봉헌합니다.

6. 4월 9일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는 15시 예수성심 성당에서 봉헌합니다.

7. 4월 16일부터 어린이 첫영성체 교리가 시작됩니다. 첫영성체를 준비하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 바랍니다.

8. 2023년 제48회 함부르크 한인 배구대회 개최는 취소되었습니다.
   공동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배구대회는 검토 중입니다.

❖ 지방공동체 소식

1. 오스나뷔르크 지방공동체 미사는 4월 15일 오후 5시입니다.

2. 하노버 지방공동체 미사는 4월 22일 오후 4시입니다.

3. 5월 28일 성령 강림 대축일에 본당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지방공동체에서 많은 분들이 본당의 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활동단체 모임 안내 ❖

사목 협의회	매월 넷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남부회장	허채열(크리스티안)
			여부회장	신유경(율리아)
			전례부장	이순자(마리아)
			총무	박종래(바오로)
주 일 학 교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 령 회	매월 넷째 수요일 11시0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비자교리	통신교리 신청자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지오 마리애 믿음의 샘 Cu.	매월 둘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김영희(클라우디아)
레지오 마리애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권지연(안드레아)
레지오 마리애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레지오 마리애 사랑의 모후 Pr. (청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이정훈(요나스)
구 역	1구역		반장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허영란(엘리사벳)
	3구역		반장	강순행(마르가리타)
			총무	김원자(막달레나)
	4구역		반장	권지연(안드레아)
			총무	이순자(마리아)
직장부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 17시30분 만남성당		회장	최승진(바오로)
			총무	이태헌(루카)
학생부 청년회	매월 셋째 주일 17시30분 만남성당		회장	
			총무	
요셉, 마리아회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4 월 행 사 표

2023년도 천주교 마산교구

일	요일	전 례 일	단 체 행 사	비고(축일, 선종일)
1	토		브레멘 미사	
2	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구역 봉사자 회의	
3	월			
4	화			이승홍 신부
5	수			
6	목	**주님 만찬 성목요일**	주교좌 돔성당 미사	
7	금	**주님 수난 성금요일**	예수성심 성당 수난 전례	심정현 신부 금육과 단식
8	토	**파스카 성야**	만남성당 강당 20시	
9	일	**주님 부활 대축일**	청년회(직장) 기도 모임	
10	월	**부활 팔일 축제 내 월요일**		
11	화	**부활 팔일 축제 내 화요일**	꾸리아	
12	수	**부활 팔일 축제 내 수요일**		
13	목	**부활 팔일 축제 내 목요일**		
14	금	**부활 팔일 축제 내 금요일**		
15	토	**부활 팔일 축제 내 토요일**	오스나브뤼크 미사	故 조재영(안드레아) 신부 7주기
16	일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첫영성체 교리 시작 요셉,마리아회 모임 청년회(학생) 기도 모임	
17	월			
18	화			
19	수	4.19 혁명 기념일		
20	목			
21	금			김용호, 이동진, 유청 신부 금육
22	토		하노버 미사	
23	일	**부활 제3주일**(생명 주일)		
24	월			
25	화	성 마르코 복음사가 축일		정영규, 임상엽, 정흥식, 최문성 신부
26	수		연령회 월례회	허기원 신부
27	목			
28	금			금육
29	토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동정 학자 기념일		
30	일	**부활 제4주일**(성소 주일)		김유태 신부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이재혁 안드레아 아벨리니 (Jaehyuk Andreas Lee)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안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nnam@gmail.com

❖ 월보 만남 ❖

편 집 인 이 재 혁 안드레아 본당 신부님 hhmannam@gmail.com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조영실(마리 세실리아), Tel : 042 135 6539

H.P : 0172 9363 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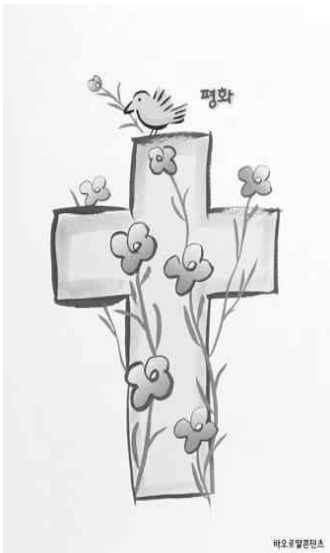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